

국가 예산 확보 발품 행정 분주

익산시, 2025년 국가 예산 목표 1조 300억원... 올해보다 197억원 상향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데 힘입어 2025년 국가 예산 목표를 1조 3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익산시 국가 예산 확보 실적은 △2021년 8,042억 원 △2022년 9,068억 원 △2023년 9,708억 원에 이어 올해 1조 103억 원까지 꾸준한 성장 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시는 정부의 계속되는 긴축 재정 기조와 고물가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인 요소로 인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찌감치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는 지난해 9월 2025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발굴 추진에 나섰다. 이후 여러 번의 추가 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한을 익산시장은 국정과제에 부합하면서도,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강조했다. 각 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익산의 성장에 이룰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지난 8일에는 정 시장과 각 부서 국·과장 등 담당자들이 세종 정부청사를 함께 방문해 각 부처에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또 전라화의를 열어 정부 부처 예산편성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 핵심 사업별 필요성과 당위

성을 정립했다. 시는 또 혁신 기화제 정부 운영지원과정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시가 발굴한 신규사업은 △식음료업 전문교육센터 구축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사업 △대조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6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395억 원이다.

내년도 핵심 계속사업은 △홀로그래프 기술 사업화 및 실증사업 △국립 호남권 청소년 다목적센터 설립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등 3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4조 6,00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8일 군산 역전종합시장 새벽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 행정 강화에 나섰다.

현장 방문 중심 행정 강화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 T/F팀 구성... 부서별 정보 공유 협업 촉진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8일 군산 역전종합시장 새벽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 행정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방문한 군산 새벽시장은 군산시 대명동 138 일원에서 매일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정도 운영되어 왔으나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출·퇴근 교통의 혼잡을 가져오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도로 보행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신 부시장은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개선할 부분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 이후 군산시는 민원 해결을 위한 부서별 역할을 정해 T/F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신원식 부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부임 이후 관내 주요 현장 30곳을 방문하여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였고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3월에는 이차전지 특화 단지 지정 산단 폐수처리시설 및 이차전지 기업 발전을 위해 관련 T/F팀을 구성한 뒤 우수 선진 사례 지역인 포항과 울산을 방문했고 곧이어 원도심 중심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한 관광 활성화 T/F팀과 함께 야간명소로 유명한 통영 현장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경포천(경문교~서대교) 주변 경관개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환경, 시설물, 녹지, 도로와 연계한 시설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서별로 종합 검토를 목적으로 구성된 협업팀과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소관부서에 구애받지 않는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함께하는 미래, 군산 새만금' 홍보에 적극 나서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홍보부스 통해 지역 화합의 중요성 알리

새만금개발청에서 대통령의 전폭자 치도 제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산에도 관련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려도 충성을 이룬 앞두고 정부가 적정성 검토도 용역을 명분으로 보류했던 새만금 예산의 긴급집행이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 원을 해제하고,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를 곧바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표류하던 '새만금 메가시티'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출생률 급감과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자치도를 위해 메가시티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정책사업이라는 주장은 끝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은 새만금 관할구역 분쟁을 멈추고 서로 협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는 14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가장 먼저 '함께하는 미래, 군산 새만금'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새만금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관할권 분쟁을 멈추고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화합하여 나아가는 의미를 전달하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군산시민들과 대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부스를 찾아 새만금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접했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보부스를 방문한 시민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을 멈추고 함께 나아가는 새만금이 되어 군산시가 앞으로 큰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스 운영은 새만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 간 화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면서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군산 새만금의 비전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호우 피해 지역 재해복구사업 총력

익산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익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농경지 주택 침수, 가축 폐사 등 2만 6,600건, 129억 원의 사유 시설 피해, 하천·수리 시설·도로·산비탈 등 56개소 90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공공시설 피해 재해복구사업 56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해 현재 56개소 중 24개소를 준공했다.

공사 중인 사업은 28개소이며, 나머지 4개소 사업의 경우도 공사 발주때 곧 착공할 예정으로 5월 말 기준 52개소 조기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부득이 5월 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6월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우선 시공 완료하고 필요시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는 등 재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는 매일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말 시장 주재로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해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인건관리를 통해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고 여름철 자연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성도 기획안전국장은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 안전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군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한경봉 군산시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응급의료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및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응급장비의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심근경색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응급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이주민 서비스 강화

익산시가 다문화 이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18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센터는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 이산출입국센터, 고용노동부 이산지정 외국인력팀, 익산시가족센터의 협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내·외국인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다문화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처 및 기관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등 참여기간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년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군산시의 임신·출산·육아·교육·고용 등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년 인구정책 가이드북이 나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저출산·보육 및 아이 돌봄, 고령화 등의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첫 관문인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내용 구성도 △임신·출산 지원 △산생아·보육·아이돌봄 △기부품 맞춤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관련기관 안내 순으로 되어 있어 시민 체감도가 높은 96개 정주지원 시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배려했다.

군산시는 이번 가이드북이 예비 또는 초보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주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